

## ■ 2025년도 문학창작주체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문학창작주체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2024.12.04.(수) 11: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2024.12.10.(화) 10:3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3차) 2024.12.13.(금) 10:30 / 동대문 라마다호텔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명 : 구효서, 문태준, 송수연, 심진경, 정대훈

문학 창작주체 공모사업은 문학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 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적 프로젝트로 문학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 [매체발간\_1차 심의]

이 사업은 기존의 단년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문학 창작의 토대가 되는 잡지를 보다 긴 호흡과 안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역량을 증대하는 일, 무엇보다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 작품을 안정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원고료를 보장받는 것은, 문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1차 심의에서는 총 41건의 잡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이중 33건의 잡지를 선정, 2차 심의로 올렸습니다.

문학의 수월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언제나 오랜 고민거리입니다.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과 잡지를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문학이 독자 대중과 안정적으로 즐겁게 만나기 위해 어떤 새로움과 변화가 필요한지, 지원한 창작 주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오랜 논의를 거쳤습니다.

사업 주체의 거점 지역과 더불어 장르별 안배를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소수자, 환경, 과학 등 다양한 시야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잡지를 돌아 보고 이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급변하는 문학 장(場)의 변화, 플랫폼의 변화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주목한 지점이었습니다. 플랫폼을 확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외형적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독자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긴 역사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사업수행 역량, 활동 목표의 구체성, 기대효과 등의 기준에 의해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곳들이 있음을 밝힙니다.

잡지를 만드는 일은 여태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건강한 문학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업 주체들을 만나고 확인할 수 있어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가지, 원고료 고시 기준을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고료는 작가의 창작 의지를 고취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잡지를 만드는 일 이외에도 정산 시스템의 어려움, 운영난 등 산재한 난제 속에서도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창작 주체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매체발간\_2차 심의]

이번 2025년 문학 창작주체 2차 심의는 1차에서 인터뷰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33건의 사업 주체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주체가 미리 준비한 사업 소개를 청취한 뒤, 심의위원이 질의를 통해 공모한 사업의 본질적 의미와 내용을 교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는 1차에서 검토했던 사업신청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던 잡지 발간과 관련한 저간의 사정과 잡지의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총 28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뷰는 서류에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보였던 사업 목적이나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 심의위원들은 실제 잡지를 보고 모호했던 부분을 확인, 생각을 수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향후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 주체가 지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적절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범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지속할 수 있는 운용 능력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창작 현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문예지 발간 사업의 경우, 문학 매체로서 창작자와 독자 등 달라진 문학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문화 예술 시장의 급변하는 형태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업 주체들을 주목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를 발행하려는 시도, 새로운 플랫폼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중요하게 보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외연의 확장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독자와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는 데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주목했고 디지털 서비스의 실행 가능성과 유효성을 두고 향후 문화예술위원회의 구체적인 지원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간 실적과 관련한 부분들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와 유통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사업 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기관지의 성격이 강한 잡지의 경우, 잡지가 공공성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청탁이 아니라 회원에게 순차적으로

원고제재 순서를 주는 잡지들을 두고 오랜시간 논의했습니다. 심의위원의 채점 결과를 합산하여 총 28건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몇몇 단체를 예비후보로 선정하는데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공모 시 제출한 지원금 범위를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경우,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선정된 사업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청 지원금을 하향 조정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업 주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선정된 사업 주체가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위축되어가는 문학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 [1차 심의\_창작공간]

이 사업은 기존의 단년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문학 창작의 토대가 되는 창작공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작공간 지원사업은 작가가 창작물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뒷받침이 되는가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간 일상다반사에서 떠나 온전히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작가의 창작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 역시 문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차 심의에서는 총 7건의 창작 공간을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지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이중 6건의 신청 공간을 선정, 2차 심의로 올렸습니다.

창작 공간을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은 창작에 적절한 작업환경과 작가에게 제공되는 숙식이었습니다. 작가가 생활공간과 분리된 창작 공간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오로지 창작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양질의 작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창작 공간이 이러한 작가의 필요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 공간의 안전성, 지속 가능성, 입주 작가 선정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인지 등을 두고 오랜 숙고를 거쳤습니다. 대부분의 창작 공간이 작가의 필요를 잘 충족하고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작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창작 거점이 지역민과 작가들을 적절히 연계하는 지점이나 작가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사실도 이 사업이 낳은 유의미한 결과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의 여부를 두고 한 군데의 창작공간이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창작 공간을 운영하는 일은 문학과 예술에 대한 사업 참여자의 높은 관심과 애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운영자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작가 선정에 있어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힙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주자 심사는 생산되는 작품의 수월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런 선순환이 문학 창작 주체를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 [2차 심의\_창작공간]

문학창작공간 2차 심의는 1차에서 인터뷰 심의 대상자로 선정된 6건의 사업 주체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사업 주체가 미리 준비한 사업 소개를 청취한 후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였습니다. 인터뷰는 1차에서 검토했던 사업신청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창작 공간 운영자의 마인드와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총 6건의 사업을 모두 선정하였습니다.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의 경우, 향후 3년 동안 사업 주체가 지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적절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운영 방안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창작 공간이 입주한 작가들의 작품 창작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창작 공간 사업 주체가 공간에 입주한 작가가 창작에만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는 작업환경과 숙식을 얼마나 균형 있게 제공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문학의 수월성과 관련, 지원자의 지원을 받을 때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고, 지원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으로 선정되는지, 심사위원 풀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창작 공간이 대부분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주 지원자를 선정할 때 창작 공간이 위치한 지역과 기타 지역 간에 안배가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운영 주체와 거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아주 짧은 기간의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보다 깊은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창작 공간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간의 사용 방식 등을 감안하여 신청지원금을 다소 조정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창작 공간 운영은 문학과 예술에 대한 사업 참여자의 높은 관심과 애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운영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학 창작 공간의 운영이 한국문화예술의 든든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